

# ‘한류’가 대만의 한국어 학습에 미친 영향

곽추문(郭秋雯)

대만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 1. 서론

2000년 7월 뼈대 방송국(八大電視台)에서 드라마 ‘불꽃’을 방영하면서부터 한국 드라마는 대만 시청자들의 관심과 열띤 토론을 이끌어 내기 시작했다. 이에 이어서 2001년 2월에 팔대방송국은 또 ‘가을 동화’를 방영, 대만 유선방송 드라마 부문 시청률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 내에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 열기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sup>1</sup> 한국 드라마는 당시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주요 흥미 대상이 됨과 동시에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 또한 점점 그 기세를 가하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폭발하자 차인표, 이영애, 송승헌, 원빈, 송혜교 등의 연예인들도 인기를 얻게 되었고, 김치, 김치찌개, 불고기 등의 관련 문화 상품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드라마 촬영장소인 ‘강원도’ 관광 열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습학원이나 언어센터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폭증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문화 현상을 신문, 잡지 등에서 ‘한류’, ‘한류 팬(하한)’이라는 명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sup>2</sup> 그 후, 웨이라이 방송국(緯來電視台)도 이러한 열풍에 발맞추어 미남, 미녀 탤런트가 열연하는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과 ‘호텔리어’를 수입, 방송하여 모두 높은 시청률을 이끌어 내어 대만 내에 ‘한류’라는 명칭은 점차 정착화되고, 그 입지 또한 더욱 공고히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소위 ‘한류’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96년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으로 수출되면서부터 한국드라마는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 후 1998년에는 한국의 유행 가요도 그 뒤를 이어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에 한국 대중문화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 한국의 락그룹 H.O.T가 베이징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후, 중국의 대중매체에 정식으로 ‘한류’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다.

<sup>1</sup> 양기봉(楊起鳳), 2001년 3월 11일, 2001년 3월 35일 참조.

<sup>2</sup> 오금련(吳金鍊), 증상운(曾湘雲)(2002:2), 《한국 드라마의 성행으로 본 대만 독자,관중의 문화 인식》, 국립교통대학 신문방송연구소 석사논문.

이어 ‘한류’ 열풍은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로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sup>3</sup>

한국의 정부나 전문가들까지도 놀라게 한 이 거대 ‘한류’ 열풍은 한국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안겨 주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류’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시키고 한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관련단체나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산업교류 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sup>4</sup> 그리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고 여러 아시아 국가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특파원을 두어 기타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지의 한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이로 ‘한류’의 영향이 지속, 확대화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2005년 1월 25일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BOOM’이라는 한국 종합 연예 잡지가 대만에서 정식 출간되었다. 이 잡지는 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연예인 소식, 그리고 한국 관광지와 문화 소개를 다루고 있다. 게다가 풍부한 사진보도 내용까지 곁하고 있어 많은 한류 팬들의 수집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한류 잡지의 출간은 많은 한류 팬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잡지 한 부분에는 별도로 간단한 한국어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로마자 발음 표기와 중국어 번역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발음을 익히고 복습을 할 수 있게도 해 놓고 있다.

한국어 세계화재단이 제공한 자료 ‘“한류”를 일으킨 드라마 및 영화’에서 초기의 ‘불꽃’ 이외에 기타 대만에서 한류를 일으킨 드라마 및 영화 명단을 보면, 한국이 당초에 드라마와 영화에 심혈을 쏟아 부었던 것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드라마가 그러하다.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 이외에 좋은 성적을 거둔 작품이 없어 상대적으로 많이 미약한 편이다(굵은 중서체로 표기한 것은 비교적 유명한 드라마 혹은 영화). 아래의 자료 중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아시아에서 ‘한류’가 불게 된 후에 한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고 더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 7월에 ‘불꽃’을 필두로 해서 2002년 3월까지 짧은 1년 반의 시간 만에 대만에서 방영한 한국 드라마 수는 무려 40여 편에 달한다.<sup>5</sup> 바로 이러한 밀집적인 공세로 인해 ‘한류’가 지속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sup>3</sup> 강인규(2003.6), < ‘한류’가 대만 한국어 교학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 >, 세계문화7  
춘계호, pp188~189.

<sup>4</sup> 한국일보(2001.10.13), <한류열풍>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http://www.ikoface.com/html/main.asp>

<sup>5</sup> 오금련(吳金鍊), 증상운(曾湘雲)(2002), p3.

〈 ‘한류’ 와 관련한 주요 드라마작품〉

드라마 명	주인공	제작사	제작년도	대만 상영년도
가을동화	송승헌, 원빈, 송혜교	팬엔터테인먼트	2000	2001.3
이브의 모든것	장동건, 채림	JS픽처스	2000	2001.5
호텔리어	배용준, 송혜교	MBC	2001	2002
겨울연가	배용준, 최지우	팬엔터테인먼트	2002	2003
대장금	이영애	MBC프로덕션	2003	2004
천국의 계단	권상우, 최지우	로고스필름	2003	2004
슬픈 연가	권상우, 김희선	김종학프로덕션	2004	2005
파리의 연인	박신양, 김정은	캐슬인더스카이	2004	2005
플 하우스	비, 송혜교	김종학프로덕션	2004	2005
러브스토리인 하버드	김래원, 김태희	로고스필름	2004	2005
내 이름은 김삼순	김선아, 현빈	MBC프로덕션	2005	2006
장밋빛 인생	최진실, 손현주, 이태란	KBS2	2005	2006
부모님 전상서	김희애, 허준호	KBS2	2005	2006
글세어라 금순아	한혜진	MBC프로덕션	2005	2006
마이걸	이다혜, 이동욱, 이준기	SBS	2005	2006
봄날	고현정, 지진희, 조인성	눈	2005	2006
궁	윤은혜, 주지훈, 김정훈	MBC	2006	2006
안녕하세요 하느님	김옥빈, 유건, 이종혁	KBS	2006	2006
연애시대	손예진, 감우성	SBS	2006	아직
파파	배용준, 이영애	KBS2	1995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최진실	MBC	1997	
아름다운 그녀	이병헌, 심은하	SBS	1997	
레디고	원빈, 윤손하	MBC	1998	
비밀	류시원, 김하늘	MBC	2000	
진실	류시원, 최지우	MBC	2000	
아름다운 날들	류시원, 최지우	김종학프로덕션	2001	
울인	이병헌, 송혜교	초록뱀미디어	2003	
상두야 학교 가자	비, 공효진	KBS2	2003	
불새	에릭, 이은주	초록뱀미디어	2004	
신입사원	에릭, 한가인	이김제작단	2005	
이죽일놈의사랑	비, 신민아	에이트픽스	2005	
깨걸 준향	재희, 한채영	KBS2자체제작	2005	
프라하의연인	전도연, 김주혁	올리브나인	2005	

〈 ‘한류’ 와 관련한 주요 영화작품〉

영화명	주인공	제작사	제작년도
쉬리	한석규, 최민식	강제규필름	1999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차태현	신씨네	2001
친구	장동건, 유오성	씨네라인2, JR픽처스	2001
폰	하지원, 김유미	토일렛픽처스	2002

클래식	손예진, 조승우	에그필름	2003
스캔들	배용준, 이미숙	영화사 봄	2003
살미도	설경구, 안성기	시네마서비스	2003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 원빈	강제규필름	2004
내머리속의 지우개	정우성, 손예진	싸이더스	2004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심은하	우노필름	1998
공동경비구역JSA	이병헌, 이영애	MK픽처스	2000
살인의 추억	송강호, 김상경	싸이더스	2003
올드보이	최민식, 유지태	쇼 이스트	2003
장화홍련	임수정, 문근영	마술피리	2003
NG	김래원, 임수정	드림맥스	2003

그러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류’는 이상에서 기술한 유행문화현상을 이끌어 낸 한국드라마 이외에도 점점 활기를 띄워가는 한국 대만 간 전자, 자동차 산업 등의 무역 교류를 포함한 것이며, 이 양대 ‘한류’가 바로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게 한 중요 원인이라는 점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드라마로 인하거나 한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류 팬과 직장 업무상의 필요로나 직장 준비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 인구 수의 대폭 증가가 한국어학습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한류’와 대만 한국어학습 열풍 간에 대체 어떠한 상호 작용이 발생한 것인가? 본문에서는 한국어학습 인구 수의 증가와 한국어교재 수의 증가 등 두 분야에서 따져 보고 이를 통한 상호 연관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 한국어학습 인구 수의 증가

한국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보이면서 한국어 학습 인구 수도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대만 ‘인력은행’의 2005년 2월 28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그 해(2005년)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수가 전년 대비 23%나 증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04 인력은행’은 만약 한국어가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게임 산업 업무 혹은 연구 개발 등의 취업 지원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는 IT 산업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대만과의 무역 거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에서도 한국어 인재가 확실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은 대만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만 내 지사 혹은 법인 설립으로 인해 한국어 인재를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2004년 한국, 대만 간 복항이 체결된 후에 개인 무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한국어 인재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어는 금년에 고시원 국가고시 외국어 항목 중에서 영어, 일본에 이어 일약 세 번째 위치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어 인재의 대량 수요에 따라 한국어학습 인구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록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학생 수를 보면 한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대학교 부설 학습기관에서 모집한 한국어 반 인원 수의 증가 상황을 보면 ‘한류’의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 외에 각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한국어 강의 역시도 그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치대학교 이외에도, 땀장대학교(淡江大學), 푸린대학교(輔仁大學), 쑹웬대학교(中原大學), 타이페이예술대학교(台北藝術大學), 징원기술학원(景文技術學院), 칭화대학교(清華大學), 쑹산대학교(中山大學), 이소우대학교(義守大學), 원자오 외국어학원(文藻外語學院) 등, 많은 대학 및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것은, 2005년 9월 징메이 여고(景美女中)는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 반을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으로 인해, 새로 설립한 정치대부중(政大附中), 명륜고교(明倫高中)도 잇따라 제 2 외국어로 한국어 반을 개설하였고 각 반에 20명 이상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거행하는 제 2 외국어 성과전(成果展) 항목 중에 한국어를 새로 포함해 넣게 되었으며, 올해 2006년 4월 29일에는 중정고교(中正高中)에서 거행한 성과전에서 순조롭게 한 해의 매듭을 짓기도 했다.<sup>6</sup>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대만에서 한국어학습 열풍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대학 교육, 교양과목 교육, 사회(평생)교육, 보습학원, 정부상관기구, 고등학교 제 2 외국어교육, 그리고 주 대만 한국기업 지사 등, 크게 일곱 방향을 통해 ‘한류’와 한국어 학습과의 연관성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 2.1 대학교육

<sup>6</sup>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단지 이는 선택과목으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4년 9월 28일에 타이완TV뉴스(台視新聞)에서는 난토투의 평밍중학교(南投市鳳鳴國中)의 한 한국화교 교사가 자신의 언어 특기를 통해 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열었고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한류에 관한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대만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국립정치대학교와 사립중국문화대학교이며, 석사 반은 문화대학교에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다. 정치대학교에는 석사과정이 없지만 빠르면 2007 학년도부터 일본어학과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언어 및 문화 석사 학부제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고 그 중에 한국어에 관련된 과목도 개설할 예정이다.

### 2.1.1 국립정치대학교.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는 1956년에 창설이 되었다. 본래 그 전신(前身)은 동방어문학과 한국어조(東方語文學系 韓文組)였으며, 2002년에 정식으로 조에서 학과로 독립, 모집 정원도 35명으로 증가하였다. 대만 최초로 한국어학과를 설립한 학교이며 국립대학교 중 유일하게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비록 모집 정원 수에 있어서 ‘한류’의 영향에 의한 증가는 보이지는 않으나, 한국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2006 학년도부터 부전공과를 늘리고 타학과 학생만을 위주로 하는 강의 개설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바로 한국어학습 인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대학교 교무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전공 신청 허가를 받은 타학과 학생은 2002년에 2명, 2003년에 13명, 그리고 2004년에는 18명에 달했고, 2005년에는 12명으로 나와 있다. 이 타학과 학생들은 본과 학생들과 함께 수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학습효과 면에서 본과 학생들과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과회의를 걸쳐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과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전공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독립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류’ 현상에 부응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치대학교를 줄곧 석사반 개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러 환경적 연유로 아직 그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 교육부가 정치대학교 외국어대학에 의탁한 북구(北區) 외국어센터 분항계획(分項計劃) 7의 ‘정치대 기존 외국어학과의 통합 및 학군의 설립(整合現有政大外文系所, 成立學群)’ 계획으로 마침내 일문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2007 학년도에 ‘동북아시아 언어 및 문화 석사 학부제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초기에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정원 모집은 15명에서 20명, 그리고 25명으로 늘었으나 전과를 하는 학생이 반수 이상을 차지해 통계를 해 보면 졸업 학생 수는 10명 남짓하다. 최근 모집 정원은 35명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취업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과를 하는 학생이 점차 줄어 졸업 학생도 20 명이 넘는 수를 기록했다. 2000 년~2006 년 간에 학생 총 인원수, 전과, 그리고 한국어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 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대 한국어학과 학생 인원 일람표 >

年度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項目								
신입생 입학 티오		30	30	35	35	35	35	35
전과 인수	전입	0	0	0	2	0	1	4
	전출	16	10	10	12	10	4	2
부전공 신청하는 타학과 학생		0	0	2	13	18	12	통계중
복수전공 신청하는 타학과 학생		0	0	0	0	1	2	
학생 총 인수		117	123	125	130	124	123	통계중

이외에도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 정치대는 해마다 교환학생을 뽑아서 자매학교인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로 보낸다. 학생교류에 있어서는 졸업생 유학과 재학생 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자리는 50년 이래 10명으로 유지해 왔는데 인재가 너무 없어서 최근 대만 취업 시장의 공급에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2.1.2 사립증국문화대학교

문화대학교는 1952 년에 최초로 한국어학과 대학원(석사반)을 개설했고, 이듬해 대학원을 폐지하고 대학부를 설립했다. 당초에는 정치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동방어문학과 한국어조로 출발을 하였다. 정치대학보다 7 년 이른 1994 년에 독립 학과로 승격이 되었고, 2000 년에 석사반이 개설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신입생 입학 정원은 60 명, 대학원은 10 명이며 학부생 총인수는 266 명, 대학원생은 36 명이니 한국어 인재를 키우는 가장 큰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면 신입생 입학 정원은 2004년부터 6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띈다. 알고 보니 교육부의 정책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정치대와 문화대를 비교해 보면 비록 정치대는 본과 학생수가 많지 않지만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신청하는 타학과 학생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가 보이는 반면, 문화대는 그렇지 않다.

< 문화대 한국어학과 학생 인구 일람표 >

年度 項目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입생 입학 티오	82	82	82	82	60	60	60
전과 인구	전입	0	0	0	0	1	0
	전출	8	3	4	0	1	0
부전공 신청하는 타학과 학생	1	2	2	6	1	5	통계중
복수전공 신청하는 타학과 학생	0	0	0	0	1	2	
대학원생 티오	10	10	10	10	10	10	10
학생 총 인구(대학원생 포함)	292	328	331	327	288	312	통계중

중국문화대학교는 한국과 자매관계를 체결하는 대학교 21개가 있다.<sup>7</sup> 정치대보다 훨씬 많다. 초기에는 졸업생을 주로 교환하였는데 1997년부터 재학생 유학제도를 도입하여 재학생도 보낸다.

### 2.1.3 맺음말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류’가 두 대학의 한국어학과의 학생 수의 증가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체적인 환경 요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만의 교육체제로 볼 때 한국어는 아직 주류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학 내 한국어학과 중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한류’가 몰고 온 취업 기회의 증가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어를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타 학과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 수의 증가는 확실히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2.2 교양과목교육

<sup>7</sup> 중국문화대학교와 자매관계가 있는 한국 대학교 21개는 다음과 같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대학교, 숙명대학교, 용인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영남대학교, 선문대학교, 호남대학교, 원광대학교, 고려대학교, 청주대학교, 공주대학교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이외에도 많은 대학교에서 ‘한류’ 현상이 몰고 온 한국어학습 열풍을 타고 잇따라 교양과목 교육 중에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학생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립정치대학교의 예를 들면, 정치대학교 외국어학부가 비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한국어 1’ 강의는 줄곧 한 반만 유지하였으나, 작년에는 한 반을 추가 개설하였고 학생 수도 35 명 이상이었다. 그리고 2006 학년도에는 ‘한국어 2’ 를 개설하여 ‘한국어 1’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은 2000 년에 일찍이 마오리 워다상업기술학원(苗栗 育達商業技術學院)에서 ‘한국언어학개론’, ‘중한문화비교’ 등의 강의를 개설해 맡은 일이 있었다. 당시 한국드라마 ‘불꽃’ 의 인기로 수강 학생이 90 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강 인원 60 명으로 제한 되어 있었고 교사 부족으로 결국 한 반만을 개설했다. 수강 학생들은 대부분 한류 팬이었고, 이들은 간단한 한국어 회화 이외에도 한국에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1 년 후 본인이 이직을 하면서 이 강의도 폐강되었다.

쑹웬대학(中原大學)은 2001 년부터 교양과목으로 ‘한국언어와 문화’ 라는 강의가 개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교사가 강의를 맡고 있고, 수강생은 매 반 60 명이며 반응 또한 상당히 열렬한 편이다. 그리고 교사는 매년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는 응답이 15%이고, 가장 많은 응답은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흥미로 인해’ 는 52%에 달했다. 그리고 기타 항목인 ‘재미있어서’, ‘취미로’, ‘한국 친구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 본 적이 없어서’ 등이 11%를 차지했다.<sup>8</sup> 비록 ‘한류’ 의 영향으로 한국어학습을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15%에 그쳤으나, 전체 응답의 52%에 달하는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흥미로 인해’ 라는 항목도 한국드라마나 한국영화를 통해 그 흥미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은 합계 67%가 되며. 이로 볼 때, ‘한류’ 가 한국어 학습열풍에 끼친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학교에서는 이에 관한 정식 통계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 교사들의 말을 참고해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대부분이 ‘한류’ 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up>8</sup> 강인규(姜仁圭,2003년6월) pp201~202

상기한 학교들 이외에도, 신주(新竹)에 위치한 칭화(淸華)대학교는 일찍이 4년 전부터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해 오고 있다. 본래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사가 과목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한국어 유학생이 맡고 있다. 타이페이 무짜(木柵)지역에 위치한 징원기술학원(景文技術學院)은 2005년부터 한국어과목을 개설했고, 타이페이예술대학(臺北藝術大學)은 금년에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했다. 이외에도 다음 학년도에 쑹산대학(中山大學)과 이소우대학(義守大學)과 원자오외국어학원(文藻外語學院)에서 잇따라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는 2006 학년도부터 ‘초급한국어(1)’, ‘한국어회화(1)’, ‘한국어회화(2)’ 등 4개의 초급과정을 신설해서 푸린대학교(輔仁大學), 징이대학교(靜宜大學), 원자오외국어학원(文藻外語學院) 등 3학교와 함께 원거리 영상학습 과목을 개설할 예정에 있다.

### 2.3 사회(평생)교육

소위 사회(평생)교육은 각 대학의 사회(평생)교육센터(推廣教育中心)를 말하는 것이다. 정규교육 단위인 대학에서는 거대 ‘한류’의 영향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평생)교육원센터의 교육과정에서는 그 열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치대학은 대만 최초로 사회(평생)교육 과정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했다. 2002년 1월 8일에 제 1학기 1급 과정을 열었으며 정치대학교 한국어 교사가 맡아 강의를 했다. 그리고 한국어학과가 있는 문화대학교 사회(평생)교육센터는 2003년에 개설하였고, 2003년 10월에 쑹웬대학(中原大學) 사회(평생)교육센터, 2004년 7월에 사범대학(師範大學) 사회(평생)교육센터, 2005년 3월에 쑹우대학(東吳大學) 사회(평생)교육센터에서 잇따라 ‘한류’에 맞춰 한국어 반을 개설했다. 단지 이 대학들의 교사는 대부분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화교, 혹은 대만유학생들이 과목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스쩌엔대학(實踐大學), 타이페이대학(臺北大學), 스신대학(世新大學) 등의 대학교들도 잇따라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초기에는 사회(평생)교육센터의 한국어 학습자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를 본 후에 흥미가 생겨서 온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직장 업무 상의 필요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직장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치대학과 문화대학 두 대학의 사회(평생)교육센터에서는 최근 1년 사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학습자 수가 한류로 인한 학습자 수를 넘어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타이페이의 대표적인 몇몇 사회(평생)교육센터에서 제공한 한국어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1 정치대학교공공기업 및 기업관리 교육 중심(政大公企中心)

期別	기간	급수	기간/주	명 수
1	2002.01.8-03.30	一	10	12
2	2002.04.15-06.30	一	10	14
3	2002.07.10-09.17	一+二	10	38
4	2002.10.12-12.20	一+二	10	45
	2002.12.25- 2003.01.29	폐강	5	0
<b>2002年</b>			<b>4반</b>	<b>109</b>
5	2003.02.12-04.19	一+二	9	40
6	2003.04.21-06.25	一	9	16
7	2003.07.10-09.18	一	10	20
8	2003.10.13-12.20	一	10	27
<b>2003年</b>			<b>4반</b>	<b>103</b>
9	2004.01.07-03.30	一+二	10	36
10	2004.04.16-06.19	一+二	10	35
11	2004.07.09-09.17	一	10	31
12	2004.10.09-12.18	一+二	10	46
<b>2004年</b>			<b>4반</b>	<b>148</b>
13	2005.01.08-03.26	一	10	27
14	2005.04.16-06.25	一+二	10	50
15	2005.07.12-09.24	一+二	10	50
16	2005.10.15-12.24	一+二	10	48
<b>2005年</b>			<b>4반</b>	<b>175</b>
17	2006.01.14-04.01	一	10	36
18	2006.4.22-6.25	一+二	10	59
<b>2006年</b>			<b>2반</b>	<b>95</b>
<b>총계</b>			<b>18반</b>	<b>630</b>

2.3.2 중국문화대학교 사회(평생)교육센터(中國文化大學推廣教育部)

	반수	명 수
2003	19	91

2004	17	103
2005	11	129
2006/6前	11	51
총계	58	374

### 2.3.3 사범대학교 사회(평생)교육센터(師範大學推廣教育部)

명칭	수업 기간	강의 시간	명 수
기초반	2004.07.09-09.24	36	14
기초1A반	2004.10.14-12.30	36	22
<b>2004年총계</b>		<b>2반</b>	<b>36</b>
초급2A	2005.03.03-05.18	36	13
기초1A반	2005.03.16-06.01	36	23
기초1B반	2005.03.18-06.03	36	25
기초1A반	2005.06.21-09.06	36	37
기초1B반	2005.06.20-09.05	36	28
초급2A반	2005.06.22-09.07	36	19
진급3A반	2005.06.23-09.08	36	12
<b>2005年 1학기 소계</b>		<b>7반</b>	<b>157</b>
초급2B반	2005.09.19-12.12	36	12
기초1A반	2005.09.22-12.08	36	31
초급2A반	2005.09.20-12.06	36	21
기초1B반	2005.09.23-12.09	36	32
진급3A반	2005.09.21-12.14	36	17
<b>2005年 2학기 소계</b>		<b>5반</b>	<b>113</b>
기초1C반	2005.12.26-2006.02.20	24	30
기초1A반	2005.12.24-2006.02.25	24	28
기초1B반	2005.12.24-2006.02.25	24	28
情境韓國語班	2005.12.28-2006.02.22	24	15
초급2A반	2005.12.29-2006.02.23	24	20
초급2B반	2005.12.30-2006.02.24	24	18
<b>2005年하계 소계</b>		<b>6반</b>	<b>139</b>
<b>2005年度총계</b>		<b>20반</b>	<b>679</b>
초급2A반	2006.03.04-05.20	36	20

情境韓國語	2006.03.07-05.20	36	22
기초1C반	2006.03.04-05.20	36	39
초급2B반	2006.03.06-05.29	36	33
기초1A반	2006.03.08-06.07	36	31
기초1B반	2006.03.10-05.26	36	35
<b>2006年 총계 소계</b>		<b>6반</b>	<b>180</b>
<b>총계</b>		<b>26반</b>	<b>859</b>

2.3.4 동우대학 사회(평생)교육센터(東吳大學推廣部韓語班)

기간	반	명 수	총계
2005.03.14-05.14	K1(초급)	41	41
2005.05.16-07.09	K1	34	
	K2	17	51
2005.07.11-09.05	K1	41	
	K2	16	
	K3	12	69
2005.09.05-11.07	K1	30	
	K1	35	
	K2	12	
	K3	13	
	K4	11	101
2005.11.07-12.31	K1	25	
	K1	18	
	K2	13	
	K2	16	
	K3	9	
	K4	8	
	K5	12	101
<b>2005年 총계</b>		<b>18반</b>	<b>363</b>
2006.1.2-3.5	K1	7	
	K1	28	
	K2	7	
	K2	13	
	K3	15	
	K6	7	77

2006年 총계	6반	77
총계	24반	440

이상의 자료를 보면, 정치대학교 公企中心이 최초로 ‘한류’에 부응하여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였고, 2002년부터 4개 반을 개설, 당시 학생 수는 12명에 그쳤으나,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그 해 년도 총계 109명으로 늘어났다. 문화대학교사회(평생)교육센터는 이듬해에 한국어 반을 개설하여 한 해 91이명 등록, 모두 19반이 개강되었고, 2004년에 7월에는 사범대학교 사회(평생)교육센터에서 한국어 반을 개설하여 처음으로 한국어학과가 없는 대학에서 한국어 반을 개설하는 선례를 세웠다. 당초에는 학생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점점 반응이 좋아져, 2005학년도에는 모두 20개 반이 열렸으며, 수강자 수도 679명이나 달했다. 이는 한국어학과를 가진 정치대학교와 문화대학교의 수준을 넘는 숫자로 속고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작년 3월에야 한국어 반이 개설된 동우대학교(東吳大學)는 2005년 한 해에 모두 18개 반이 열렸고, 363명이 등록을 했다.

이러한 숫자를 종합해 보면, 대만의 대다수 대학, 혹은 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센터가 직, 간접적으로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반을 개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한류’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류’가 불기 시작한 시간을 대조해 보면, 이 학교들의 행보는 조금 늦었던 감이 없지 않다. 사실 2000년 7월의 ‘불꽃’, 2001년 3월의 ‘가을동화’ 등의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하면서 대만에는 한국어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선두 격인 정치대학은 1,2년이 늦은 2002년 3월에야 반을 열었다. 반면에 사설보습학원, 특히 구국단(救國團) 산하의 청년복무사(靑年服務社)는 발 빠른 행보를 취해 2000년에 이미 한국어 반을 개설했다. 또한 활발한 호응에 힘입어 그 해 등록 수강자가 모두 583명에 46개 반이나 열렸다. 이는 ‘한류’의 거센 영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는 구국단 청년복무사(救國團靑年服務社)가 제공한 자료이다.

## 2.4 사설 보습학원

### 2.4.1 구국단 청년복무사 (救國團靑年服務社)

期別	반급 수	맨 타임
8901	7	57
8902	5	48
8903	6	56

8904	5	50
8905	3	59
8906	4	72
8907	4	76
8908	5	81
8909	7	84
<b>2000年總計</b>	<b>46</b>	<b>583</b>
9001	9	107
9002	9	125
9003	10	162
9004	12	192
9005	13	207
9006	14	219
9007	15	215
9008	16	202
9009		
<b>2001年總計</b>	<b>98</b>	<b>1429</b>
9101	17	217
9102	17	210
9103	18	274
9104	20	286
9105	23	267
9106	25	284
9107	22	256
9108	23	258
9109	24	251
<b>2002年總計</b>	<b>189</b>	<b>2303</b>
9201	22	232
9202	22	240
9203	24	221
9204	23	215
9205	24	189
9206	27	243
9207	27	227
9208	27	205
9209		
<b>2003年總計</b>	<b>196</b>	<b>1772</b>
9301	24	193
9302	25	200

9303	25	204
9304	23	215
9305	25	228
9306	24	203
9307	20	205
9308	23	208
9309	22	197
<b>2004年總計</b>	<b>211</b>	<b>1853</b>
9401	27	193
9402	29	289
9403	30	305
9404	30	306
9405	37	489
9406	40	466
<b>2005年總計</b>	<b>193</b>	<b>2048</b>
9501	38	472
9502	39	477
<b>2006年總計</b>	<b>77</b>	<b>949</b>
비고	2000~2003년까지는 매6주 단위로 개강. 따라서 개강 기수가 한 해에 8기에서 9기까지 일정치 않음. 2004년부터 1기를 8주 단위로 구성해 매년 6기가 열리고 있음.	

청년복무사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한국어 수강자 수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폭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부터 1700명 이상, 200여개 반의 안정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놀랄 만한 숫자는 상기한 각 대학의 사회(평생)교육센터조차도 허를 내두를 정도다. 이것은 ‘한류’가 한국어학습에 끼친 영향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4.2 기타

최근 대만 인터넷 상에서는 한국어학습에 관한 크고 작은 사이트가 상당수 생겼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은 아래 몇 개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http://groups.msn.com/ql8k593lg7f94guto41s3ud8n3/page29.msnw>

<http://homepages.ihug.co.nz/~pwong/frame1.htm>

[http://rki.kbs.co.kr/learn\\_korean/e-text.htm#1](http://rki.kbs.co.kr/learn_korean/e-text.htm#1)<sup>9</sup>

[http://chinese.gg.go.kr/korean/Learn\\_List.jsp](http://chinese.gg.go.kr/korean/Learn_List.jsp)

한국어 학습 사이트 외에도 일반 보습학원, 개인 과외 그리고 교회 등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 2.5 정부 기관

1. 국방부 어문 센터 : 일부 지정된 군인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개설해 오다가 2000 년에 폐교됨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2005 년 4 월부터 또다시 개설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
2. 외국무역협회와 무역교육기금회 : 부정기적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3. 경제부 관련 부문 : 경제부에 속하는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中小企業信用保證基金)”에서는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 적이 있으며 다른 상관 부문에서도 수요에 따라서 단기적인 한국어 강의를 한 때가 있었다.
4. 국립교육방송국 : 이 방송국은 한국어 교학 프로그램 외에 홈페이지에서도 이에 대한 과정을 설치한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한국어 과정을 이수했는데도 한국어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서 잊어버리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 2.6 고등학교 제 2 외국어

대만에서는 일찍이 고등학교에서 제 2 외국어를 실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류인 일본어 이외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반수가 서구 언어에 국한되어 있다. 물론 제 2 외국어를 중시해 온 징메이 여고(景美女中)에서는 작년(2005 년)부터

---

<sup>9</sup> 이 사이트는 KBS World Radio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사이트로서 기타 언어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최초로 제 2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했고, 열렬한 반응으로 인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반 개설 초기에는 여러 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하였다, 그 후에 정치대부고(政大附中), 명륜고교(明倫高中)에서도 이를 따라 한국어 반을 개설하였고 20 명 이상의 학생이 공부를 한다. 금년 4 월 29 일에 열린 고등학교 제 2 외국어 성과전에서 본래 한국어는 항목에 없었으나 1 개월 전에(3 월말) 주최 측이 한국어학습을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서둘러 한국어를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로써도 한국어가 고등학교에까지도 점차 그 열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2.7 주 대만 한국 상사나 법인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대만 기업과의 합작하는 기업이 최근 몇 년 간 우후죽순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이외에도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대만에서의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삼성, LG, 현대삼양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모두 대만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사내에 한국어 반을 열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 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국제화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2.8 맺은 말

종합해 보면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한국 드라마의 영향 :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스타를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는 그들의 동기가 강한데 처음에 열심히 배우다가 후에 어려워져서 포기하게 되어 인삿말밖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한국 문화의 관심 :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드라마, 하나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사람이 많다.
3. 언어의 관심 : 순수히 언어를 좋아하고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유형이다.
4. 직장의 요구 : 한국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나 한국회사에서 취직하고 싶거나 이미 이러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의 수요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5. 한국 유학 : 한국어학과에서 출신한 학생이나 일반 학습자는 한국에 유학가거나 언어연수하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많다.
6. 기타 : 재미 있거나 한국 친구가 있거나 한번 배워 본다는 생각이라든지 국제 결혼, 국제 교류...등 다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 3. 한국어 교재의 증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에 수요에 따라 한국어 회화서적도 역시 줄줄이 선을 보이고 있다. 2006 년부터는 그 모습이 비교적 두드러진다. 한국어회화 서적 출판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산쓰탕(三思堂)은 일찍이 2001 년부터 6 권의 한국어 학습서적을 내 놓은 바 있다. 그 후 2002 년에 통일출판사(統一出版社)에서 내 놓은 ‘韓語簡單說’은 출시 2 주도 채 안 되어 서둘러 재판(再版)을 출간하게 되었다, 길고 보커라이(博客來)인터넷 서점 언어 서적 부문 판매 순위 6 위를 기록, 처음으로 일본어를 제치고(1 위~5 위는 모두 영어) 초급한국어 학습서적 최고의 판매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교재에 대한 수요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sup>10</sup> 하지만 수량으로 볼 때, 2002 년이 각 출판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서적을 선보인 해라 할 수 있고, 그 중 산쓰탕(三思堂)이 16 권으로 가장 많다.

과거 한국어 학습서적은 그 수가 드물어 서점에서 기타 외국어 서적 코너 한 칸에 끼워져 있는 신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청판서점(誠品書局)신이(信義)분점에 외국어서적 코너 중의 한 자리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적은 다반수가 비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한 것들이고 그 내용, 품질도 천차만별이다. 오자(誤字) 특성이인 서적 뿐만 아니라, 문법 설명이 없이 회화만을 다루고 있는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알아보기 힘든 로마자 표기나 중국어 발음으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한 서적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필자에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정치대와 문화대 두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는 소수 교사의 친필 서적 이외에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한국 대학의 부설 언어센터에서 출간한 회화서적이나 독본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어학습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새로워진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 연구개발에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들은 비교적 복잡한

<sup>10</sup>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학과 학생을 제외한 이들을 말한다.

문법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정규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으나, ‘한류’로 인해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다소 난해한 감이 없지 않다.

각 출판사에서 내 놓은 한국어 학습서적을 출판사와 작가, 출판일자 등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 三思堂

	書名	作者	出版日	價錢	總計
1	韓語新手快速上口	劉小瑛/著	2006.08.21	\$249	2006-2권
2	1日10分!韓語會話快可說	金英愛/著	2006.07.28	\$200	
3	無師自通韓語速成	金英愛/著	2005/11/15	\$200	2005-4권
4	快速學會說韓語(會話篇)(書+4CD)	金英愛/編著	2005/10/07	\$648	
5	韓語會話快速入門(一書四CD)	金英愛/著	2005/06/30	\$630	
6	韓語單字輕鬆記(書+4CD)	金英愛/著	2005/05/25	\$630	
7	邊玩邊學韓國話(書+4CD)	金英愛/著	2004/09/30	\$630	2004-1권
8	會中文就能說韓語旅遊篇(書+4CD)	楊穎,金正恩/著	2003/08/20	\$666	2003-7권
9	輕鬆學韓語(書+4CD)	梁成銀/著	2003/08/20	\$630	
10	初學韓語單字1000-1書4CD	劉小瑛/著	2003/06/13	\$648	
11	食衣住行生活韓語(1書+4CD)	韓艾鵬/著	2003/05/28	\$648	
12	1小時學會觀光韓語(口袋書)	劉小瑛/著	2003/05/28	\$126	
13	哈韓族韓語會話速成CD版	劉小瑛,蕭應敏/著	2003/04/10	\$648	
14	3分鐘學會說韓語(袖珍本)	劉小瑛,蕭應敏/著	2003/04/03	\$126	
15	韓語單字超革命800(書+3CD)	楊穎/編著	2002/12/13	\$468	2002-16권
16	快速韓語自學45招(1書+4CD)	劉小瑛,蕭應敏/編著	2002/12/10	\$648	
17	1小時學會觀光韓語(書+4CD)	劉小瑛/編著	2002/11/06	\$648	
18	即學即用韓語120句(書+2CD)	金蘭/編著	2002/10/18	\$414	
19	會中文就能說韓語(書+4CD)	劉小瑛/編著	2002/08/15	\$630	
20	韓語發音快速入門(書+2CD)	劉小瑛/編著	2002/07/18	\$359	
21	快學通韓語三百句(CD版)	張敏/編著	2002/07/05	\$450	
22	速記韓語單字3000(書+4CD)	劉小瑛/編著	2002/06/10	\$675	
23	用簡易韓語遊韓國(書+CD)	劉小瑛,蕭應敏/著	2002/05/10	\$648	
24	哈韓族韓語會話速成(書+4卡帶)	劉小瑛,蕭應敏/編著	2002/04/15	\$648	

25	韓語必備單字2000(書+CD)	劉小瑛/著	2002/04/04	\$630	
26	韓語入門(書+互動光碟)	劉小瑛,蕭應敏/編著	2002/03/15	\$180	
27	食衣住行生活韓語(書+4卡)	韓艾鵬/編著	2002/03/14	\$648	
28	韓語入門(附二捲卡帶)	劉小瑛,蕭應敏/編著	2002/03/07	\$333	
29	快速韓語自學45招(書+4卡)	劉小瑛,蕭應敏/編著	2002/02/19	\$648	
30	初學韓語單字1000(書+4卡)	劉小瑛,蕭應敏/著	2002/01/15	\$648	
31	1小時學會觀光韓語(一書+4卡)	劉小瑛/編著	2001/11/15	\$648	2001-6권
32	3分鐘學會說韓語(一書4卡)	劉小瑛,蕭應敏/合著	2001/10/15	\$648	
33	基礎韓語立刻上手	劉小瑛/編著	2001/09/15	\$108	
34	韓語習字帖	劉小瑛/著	2001/09/10	\$45	
35	韓語必備單字2000(書+4卡)	劉小瑛/編著	2001/08/15	\$630	
36	高效能韓語教室[卡]	漢城韓語研究室/著	2001/01/15	\$675	

(二) 統一出版社

37	韓國語快樂學輕鬆說-2	金美順/著	2006/01/16	\$499	2006-1권
38	韓語超EASY(書附2CD)	鄒錫美/著	2005/09/22	\$314	2005-2권
39	韓國語快樂學輕鬆說-1	金美順/著	2005/06/01	\$499	
40	商用韓語(書附2CD)	郭秋雯/著	2003/09/16	\$269	2003-3권
41	韓語第一步(書附CD)	金美順/著	2003/06/09	\$89	
42	韓語會話脫口說(書附2CD)	金美順/著	2003/06/09	\$269	
43	韓語簡單說(書附2CD)	郭秋雯,金美順/編著	2002/03/06	\$269	2002-1권

(三) 宜新文化出版社

44	邊走邊說韓國語(1A P3)新版	夫伯/著	2006/06/08	\$680	2006-3권
45	易學韓語2(1A P3)	韓國語教育院	2006/06/08	\$800	
46	易學韓語1(1A P3)	韓國語教育院	2006/06/08	\$800	
47	韓語—初級2有聲CD 7片	宜新文化/著	2005/05/17	\$864	2005-4권
48	韓語—初級1有聲CD 6片	宜新文化/著	2005/05/17	\$864	
49	韓語—初級2	GANADA Dorean Language Institute/著	2005/04/01	\$252	
50	韓語—初級1	GANADA Dorean Language Institute/著	2005/04/01	\$252	

(四) 愛迪生

37	懂中文就會說韓語(1書+3CD)	鄭潔/編著	2002/02/24	\$522	
	韓語輕鬆學韓語(書+2CD)	朴智嫻/編著	2002/02/24	\$446	2002-2권

53	用中文學韓語最輕鬆(書+3卡帶)	王藝燕/著	2001/12/15	\$522	2001-1권
----	------------------	-------	------------	-------	---------

(五) 水牛

54	韓國語言學概論	王俊, 郭秋雯/編著	2000/1/31	\$200	2000-1권
55	階梯韓語	楊人從	1996/08/31	\$405	1996-1권
56	韓語語音學	王俊編著	1993/07/15	\$225	1993-1권

(六) 久鼎

57	韓語生活會話	林明德/編著	2005/10/01	\$180	2005-1권
58	韓語觀光會話(書+2CD)	孫勝利/著	2004/08/01	\$269	2004-1권

(七) 明文

59	韓語韓文	林先渝/著	2004/09/01	\$450	2004-1권
60	韓語語法	楊人從/著	1997/12/01	\$627	1997-1권

(八) 其他

61	中拼音韓語快捷學習法1377句		華立文化	2006.04.11	\$99	2006-2권
62	中文拼音說韓語-韓語旅遊書	陸宇/著	漢宇國際	2006.05.03	\$129	
63	21世紀初學者韓語會話速成書+CD	金木松/著	萬人	2005/10/20	\$261	2005-4권
64	看中文說韓語(全套一書+2CD)	金賢姬, 張明明/合著	大利	2005/08/01	\$449	
65	會日語就會韓語(附1CD)	鄭宜熏, Yoshiko/著	上澤社	2005/05/20	\$224	
66	實用韓語日常會話: 簡單拼音說韓語(附2CD)	金哲/著	首學文化	2005/05/05	\$209	
67	實用韓語會話(附CD1張)	萬里編輯部/編	萬里機構	2000/01/25	\$260	2000-1권

(九) 맺은 말

상기한 67권의 한국어서적 중 8권만이 정치대와 문화대 교수가 집필한 서석이고 (굵은체 표기) 나머지는 화교나 한국유학생이 집필한 것이다. 통계를 해 보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1993년에 1권(한국 어음학, 정치대학교 퇴임교수인 왕쥔(王俊) 선생이 집필. 대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다)이 있다. 그리고 1996년에 1권, 1997년에 1권, 2000년에 2권, 2001년에 7권, 2002년에 19권, 2003년에 10권, 2004년에 4권, 2005년에 13권, 2006년에 8권이다. 이 중 2005년에 이신문화사(宜新 文化)에서 수입 출판한 한국 서적 4권을 제외하면 그 해에는 사실상 9권이 된다.

年度	數量	年度	數量
1993	1	2003	10
1996	1	2004	3
1997	1	2005	15
2000	2	2006	8
2001	7	總計	67
2002	19		

앞에서의 학습인구 수와 대조해 보면, 한국어학습자 수, 한국어교재 출판 수가 가장 많은 시기인 2002년이 ‘한류’의 지표가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숫자의 폭증은 필자의 견해로는 2000년의 ‘불꽃’을 거쳐 2001년에 대만 내 유선방송 드라마부문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가을동화’, 또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브의 모든 것’ 등의 효과가 한국어학습 열풍을 가져다 준 것이라 본다.

또한 전에는 한국어에 관한 교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출판사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2005년도 한 중요한 지표가 되었는데 드라마 ‘폴하우스’는 또다시 젊은이들의 한류 열풍을 불게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더구나 그 동안 출판되어 있는 책들은 실용성이 없거나 학습자의 수요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된 것이 많아 출판사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다시 더욱 실용성이 있는 교재를 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에 한국어 교재의 재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 4. 결론

비록 ‘한류’가 한국어학습 열풍을 몰고 오기는 했으나 기타 필요조건의 결핍으로 한국어 인재 방면의 양성에는 결코 구체적인 영양을 주지 못했다. 대학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기타 학습 통로를 통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모두 능통한

인재를 배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처럼 보여진다. 이 중에는 교사가 태부족 상태인 것 이외에도 학습자 자신도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도 원인의 하나라 하겠다. 조사에 따르면, 한류 팬들 중에 중급 이상의 과정까지 학습을 유지하는 이는 극히 일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위의 통계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 학습자들의 생각에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 부족에 또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분포 또한 초기에 한류 팬들 위주에서 현재는 점차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배우는 직장인들 위주로 그 수가 이동되고 있다. 이들 직장인들은 기업주의 요구에 의해 배우게 된 사람들이고 학습 동기 또한 비교적 강한 편이나,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어학습에 관한 문제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필자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자 대면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 1. 교사 부족

한국어에 대한 환경이 아직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대학교육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행하기가 힘들고, 이에 따라 교사 양성 문제 역시도 그다지 절박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대학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사회(평생)교육센터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대학교수들이 교육 지원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서남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많은 대학 교사 인력을 배양해 놓았고, 최근에는 중, 고교 제2외국어 교사 배양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만약 대만에도 이 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교사 기근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상기한 최대의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복무사(靑年服務社)의 교사는 대부분 한국 유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나 언어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터라 학습 효과가 어떨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 2. 교재 선정과 갱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많은 교재를 연구, 개발하였다. 각 대학에서도 하나



들씩 어학당을 설립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다양각색의 양질의 교재를 펴 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 학생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언어 교육의 갱신

한국에서는 교재에 대한 연구, 개발 이외에도 새로운 한국어 교수법도 개발을 하였고, 외국의 교사들에게 무료로 연수를 받을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한국어 교육자들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 4. 한국어 인재의 공황

한국어는 사실 그리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이러한 연고로 학습상 장애에 부딪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이 외에 대만에서 한국어는 전체적인 추세의 영향으로 여전히 열세에 놓여 있고, ‘한류’가 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외국 학생들에게 단기 언어연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대학 내의 기존 교환학생 제도 외의 기타 학생들도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sup>11</sup>

### 참고문헌

- 游娟環 (2006), 「韓流風中台灣韓語教育現況分析與展望」, 韓流現象國際學術研討會, 台北中國文化大學。
- 吳金鍊、曾湘雲 (2002), 『從韓劇的風行看台灣閱聽眾的文化認同』, 國立交通大學傳播研究所碩士論文。
- 姜仁圭 (2003), 「『韓流』對台灣韓語教學的影響及其相關問題」, 『世界文學』7春季號, p.188~189.
- 楊起鳳 (2001), 「藍色生死戀 阿里郎揚眉吐氣 收視率奪冠 韓流魅力難檔 有線台紛紛跟進」, 『星報』, 第11版。
- 楊起鳳 (2001年3月25日), 「藍色韓風漂亮了結 陳昭榮帶旺 台灣阿誠大老二」, 『星報』, 第11版。
- 楊起鳳 (2001年4月20日), 「台灣人「最哈什麼劇」!」, 『星報』, 第8版。

<sup>11</sup>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어 세계화 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어교육학회 등의 정부, 민간 기구에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여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劉淑棻 (2000年8月24日), 「好戲價到 韓劇篇 韓劇流侵 搶搶滾」, 『民生報』, 第CS3版。

한국일보 (2001年10月13日), 〈한류 열풍〉

오금련, 증상윤, 《한국 드라마의 성행으로 본 대만 독자, 관중의 문화 인식》, 국립교  
통대학 신문방송연구소 석사논문.

강인규, 〈‘한류’가 대만 한국어 교육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

양기봉, 〈가을동화, 아리랑의 선전투구로 시청률 1위, 막을 수 없는 한류의 매력에 유  
선방송국들 하나하나 따라나서〉

양기봉, 〈가을색 한류 멋진 결말 장식, 그 뒤를 이어 천짜오룽 아침, 선두에 나서〉

양기봉, 〈대만인들, 어느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유숙분, 〈드라마 납시오, 한국 드라마 편, 한국드라마 열풍 뜨겁게 불어 닥치다〉

한국일보, 〈한류 열풍〉